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부부간 평등성을 중심으로 -

The Change of Family Relations by the Internet Use of Housewives. - Focused on the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Equality between Couples -

이현아* · 이기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Hyunah Lee · Kiyoung Le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family relations following the Internet use of housewives. The survey was performed on-line and off-line. 582 housewives who used the Internet at home gave valid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fter having started using the Internet, housewives felt that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has increased while the level of equality between couples unchanged. Second, the change in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ha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Whether or not other family members used the Internet also affected the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Third, the change in equality between couples depended on their ability to use the Internet. This suggested that the ability to use the Internet was the core element to an equal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public policy.

Key words : housewives, Internet use, changes of family relations,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equality between couples

I. 서론

Nua사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사용자가 5억 4천만명(2002년 2월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인터넷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인터넷사용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8년 이후 급증하여 2003년 6월 현재 국내 인터넷이용률은 64.1%(2,861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 또한 인터넷이용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12.2시간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그야말로 "인터넷의 생활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보급과 사용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넷백류의 조사에 의하면 ADSL을 비롯

한 광대역초고속통신망의 가정보급률에서 우리나라가 57.3%로 미국 등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한국경제신문, 2001.4.5일자), 또한 닐슨/넷레이팅스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인터넷이용시간도 한달 평균 16시간17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Nielsen/Netratings, 2001).

이처럼 가정내 초고속통신망의 보급과 인터넷사용이 확산되면서 이제까지 정보화의 소외계층으로 간주되어 왔던 주부들의 인터넷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2001b)에 의하면 주부의 인터넷사용률은 1999년 5.1%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3월 현재 24.3%로 무려 5배정도 증가하였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할 때, 주부의 사용률 자체는 매우 낮은 것이지만 성장률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주부인터넷교육¹⁾에 힘입어 주부의 인터넷사용이 날이

* Corresponding author : Hyunah Lee
Tel : 02-880-8928 H.P : 011-344-9968
e-mail : leehyun@snu.ac.kr

1) 정보통신부는 2000년 3월부터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교육 희망자가 폭증함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200만명으로 늘리고 교육기관도 769개에서 1057개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주부의 인터넷사용의 증가는 주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가족체계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부의 인터넷 사용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가정에서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한 이후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정보화에 따른 가정에서의 인터넷활용 증가

가정의 정보화란 정보기술혁신이라는 기술적 기초 위에서 가정에서의 정보매체의 응용과 활용이 고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홈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가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가정과 가정, 가정과 기업, 가정과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된다. 즉, 가정내 홈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면, 가정내 기기 간의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가정 외부의 환경과 쌍방향적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은미, 1998).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정보화수준을 인터넷사용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가정의 컴퓨터보급률과 인터넷 접속여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의 추이를 아래 <표1>을 통해 보면, 90년도에 약 10% 수준이었던 가정내 컴퓨터 보급률이 10년이 지난 2000년 현재에는 66%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a)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증가하여 2000년 12월 현재 가정의

컴퓨터보급률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급률의 증가는 컴퓨터가 이제 우리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한편 가정의 인터넷접속은 아래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1년 3월 현재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52.3%, 컴퓨터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72.1%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즉, 전체 가구의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의 가정보급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넷벨류의 조사에 의하면 ADSL을 비롯한 광대역초고속통신망의 가정보급률에서 우리나라가 57.3%로 미국 등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한국경제신문, 2001.4.5일자), OECD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우리나라가 30개 회원국 중 광대역 인터넷사용자가 1백명당 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 2001.4.25일자).

최근 정보통신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5월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가 590만명에 육박하였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4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예상대로 올 연말 700만 가입자가 달성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세계 처음으로 2가구당 1가구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inews24.com, 2001.6.12일자).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50m²이상의 정보문화실(컴퓨터실과 장비실)을 확보해야하고, 각 세대마다 초고속구내통신선로를 설치해야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규정」³⁾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이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인터넷의 가정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

<표1>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추이

	90년도	94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컴퓨터 보급률	11.0%	20.7%	43.2%	44.5%	51.8%	66.0%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표2> 가정의 컴퓨터 보유여부와 인터넷 가능여부

	컴퓨터 보유가구			컴퓨터 미보유가구
	계	인터넷 가능	인터넷 불가능	
전체가구	72.1%	52.3%	19.8%	27.9%
PC보유 가구	100.0%	72.5%	27.5%	-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b)

- 2) 학생의 인터넷이용률은 99년 42.4%에서 2001년 3월 84.7%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사무직의 인터넷이용률은 99년 41.4%에서 2001년 3월 76.1%로 그 성장정도가 주부에 비해 낮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b)
- 3) 건설교통부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초고속 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입주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등 입주인 편의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건설교통부, 2000년10월25일자 보도자료).

<표3> 가정생활에서 인터넷의 활용

가정생활영역	세부영역	인터넷의 활용
가사 노동	의식주생활	·인터넷을 통한 의식주생활관련 정보획득 (식단요리정보, 인테리어정보, 패션정보 등) ·사이버 아파트
	구매활동	·인터넷쇼핑 ·인터넷을 통한 상품정보탐색
	가계관리	·인터넷뱅킹, 인터넷주식거래 ·인터넷가계부, 인터넷민원처리 ·인터넷예약 및 예매 ·재테크 등 가계관리정보 획득
	가족원돌보기	·인터넷을 통한 가족건강관리 정보획득 ·원격진료(사이버클리닉) ·사이버 가족상담
	자녀양육 및 교육	·인터넷을 통한 자녀양육 정보 획득 ·사이버 자녀학습
사회문화적 활동	TV시청 및 라디오청취	·인터넷 TV 시청 ·인터넷 라디오 청취
	신문독서	·인터넷 신문, 뉴스 보기 ·인터넷 잡지, 소셜 읽기
	가족단란	·가족간 이메일 교환 ·가족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동거가족 등
	취미오락	·취미오락을 위한 사이버동호회 ·인터넷 채팅, 게임 ·인터넷을 통한 영화, 음악감상 ·각종 취미·오락·여행 정보탐색
	교양학습	·성인재택학습 ·전자도서관, 사이버자료실 ·사이버대학, 사이버강의
	종교활동	·사이버 법당, 사이버 교회 ·종교활동을 위한 사이버동호회
직업 노동	·SOHO, 재택근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잔무처리	

라,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가정생활 속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음 <표3>로 제시하였다.

2.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관계는 가족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간의 심리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심리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다(유영주, 1996).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개인적·심리적 관계의 측면과 사회적 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서 개인적·심리적 관계는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가족내 권력구조나 역할구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족관계의 개인적·심리적 측면인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가족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가족내 성역할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가족원간의 관계는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가족원간에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원간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즉, 가족원간의 관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인 것이다. Galvin과 Brommel (1986)는 가족원간의 친밀감 수준은 가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원간의 친밀감을 가족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밀접함의 정도라 보았다.

한편 가족내 성역할관계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별분업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역할이란 특정한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유형(옥선화, 1980)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Adams(1986)는 부부간 성역할관계의 변화를 전통주의, 신전통주의, 평등주의로 분류하여 설명한 바 있다. 하였다. 전통주의는 부부간의 역할구분이 뚜렷하여 남편과 부인은 각기 분리된 채 역할수행을 하고 서로의 역

할에 관여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고, 평등주의는 남편과 부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목표나 능력에 따라 원하는 역할을 선택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공유와 역할전환이 가능한 유형이다. 최근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전통적 성역할관계가 평등적 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내 성역할관계의 변화를 부부간의 평등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간의 평등성은 부부가 역할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장되는데, 부부가 역할을 공유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서로 경제적 부양 및 가사,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Adams, 1986). 본 연구에서도 부부가 서로 경제적 부양 및 가사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부부간의 평등성으로 본다.

3.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가족내 성역할관계의 두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도 두가지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1) 가족원간 친밀감의 변화

인터넷사용이 가족원간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두가지 상반된 경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인터넷사용이 가족원간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고립감을 증가시킨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성원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가족간 친밀감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견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컴퓨터 이용이 TV시청시간을 단축시키고, 가족과의 여가행위에 대한 참여를 축소시키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한다(Bird 외, 1990). 이러한 경향은 앞서 제시한 시간사용의 변화에 대한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사용이 가족원간 고립감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로는 Kraut 외(1998), Hughes(1999), Norman 외(2000) 등이 있다.

미국 Carnegie Mellon 대학의 Kraut 등은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The HomeNet Project」를 수행하여 왔다. HomeNet Project의 일환으로 Kraut 등은 인터넷사용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인터넷의 이용이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고, 사회적인 참여정도도 감소하며, 우울증이나 고독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ut, Lundmark, Kiesler, Mukophadhyay 와 Scherlis, 1998). 이와 유사하게 Hughes(1999)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사용이 사회적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며, 고독감과 우울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Stanford 대학의 계량사회학연구소(SIQSS)의 Norman과 Lutz(2000)가 2,689가구의 4,1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활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넷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예를들면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쓰는 사람 중 13%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8%는 사회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줄었고, 26%는 친구와의 대화나 가족과의 전화가 줄었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활동이 많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0)의 「The Internet Life Report」에서는 앞서 제시된 Kraut 등(1998)과 Hughes(1999), Norman 등(2000)과는 반대로 인터넷이 사회적 고립화의 역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인터넷 사용자의 55%가 e-mail 교환으로 가족원간의 관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가족과 E-mail을 교환하는 사람들 중 59%가 E-mail 덕분에 가족원간 의사소통이 많아졌다고 한다. 가족간 E-mail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31%가 E-mail로 솔직한 얘기나 언짢은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터넷과 이메일은 가족을 더 가깝게 해주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이로써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고, 보다 솔직한 얘기나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더 많다든지 하는 결과는 인터넷 사용자사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조정문 외, 1999)도 가정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예를들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나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갈등해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박부진 외(2000)는 인터넷이 가족문화에 상반되

는 두가지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의 이용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성원과 동일 공간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외부집단과 연결됨으로써 각 가족성원들을 고립시키는가하면, 다른 한편 가족성원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도움을 줌으로써 가족성원들간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이중적 영향은 가족집단의 특성, 특히 가족집단이 갖는 의사소통의 원활함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즉, 기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족성원간의 상호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인터넷 이용은 가족간의 대화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 가족간 도움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기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가족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이용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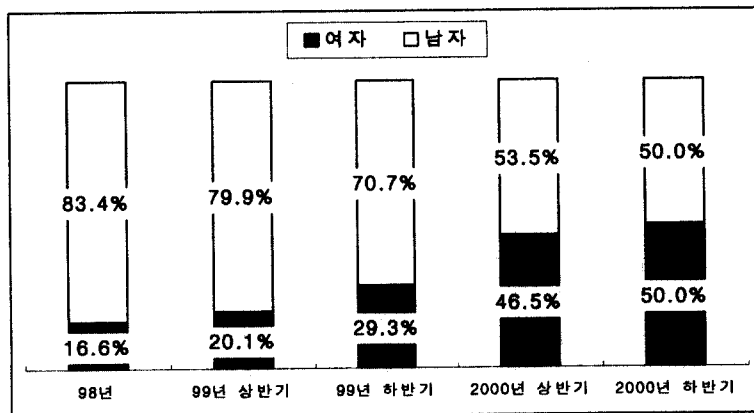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인터넷사용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활동이므로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가족원들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부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인터넷사용이 가족성원간 고립감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가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 지닌 특성에 따라 인터넷사용이 친밀감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족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가정내 인터넷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인터넷이 가족성원들 사이의 중요한 상호작용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부부간 성역할관계의 변화

전통적으로 부부관계는 남편은 부인을 통제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구도였다. 이와같은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경제적 생산능력을 인정받는 생산자로서의 남성과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소비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가치평가, 부계 혈통의 사회적 원리에 따라 자녀에 대한 친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불평등한 친권행사,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를 남성이 독점하는 불평등한 사회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부부사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정보의 편중현상이 완화되고, 이로써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 존재해 왔던 성차별의식이 감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박부진 외, 2000).

정보화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로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KNP(2000)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인터넷사용이 아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하반기에는 인터넷이용자의 성별 비율이 50:50에 도달하였다. 이와같은 인식의 전환과 여성이용자의 증가는 정보공간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시키고 있으며(Plant, 1996; Rogers, 1995; 박부진 외,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가족집단내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부부간 성역할관계가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조정문 외(1999)는 정보사회에서는 부부간 엄격한 역할구분이 약화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공유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실증연구를 한 결과, 정보화된 사람일수록 근대적인 성역할의식



자료 : KNP보고서(2000)

<그림1> 성별 인터넷 이용자 비율

을 지니고 부부간의 독립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으로 부부간 성역할 평등화를 예견한 바 있다. 고선주(2000)의 연구에서도 네티즌들의 성역할의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등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네티즌들은 생계부양자로서 남편의 역할이나 자녀양육자로서의 부인의 역할보다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터넷사용이 평등한 성역할의식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offler(1980)도 정보화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남성과 여성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예측은 정보화로 많은 가사노동이 자동화됨으로써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가정 밖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늘어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오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게다가 정보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직업이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정보화사회에서 각광을 받는 '골드칼라'(golden-collar)직종은 섬세함과 감성 등 '여성적'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게 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기반한 것이다(윤정로, 1998).

뿐만아니라 정보화사회에서 노동과 소비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노동과 소비영역에서의 성별분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시간이 유연화되고,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고 남성도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등 기존의 성별분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을 통해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소비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에서의 성별분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처럼 노동과 소비양식을 둘러싼 성별분업의 변화는 곧 가정내 부부의 성역할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의 노동과 소비양식의 변화가 곧 남녀간 평등에 기여하거나 가정내 성별 분업을 완화시킬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조은, 1998). 여성의 재택근무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Fothergill, 1994; Haddon과 Silverstone, 1995), 재택근무가 아직까지는 가정에서의 전통적 성역할과 성별분업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1999)의 연구에서도 재택근무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시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여성 재택근무자의 직무와 가사의 이중부담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가정내 정보화수준의 향상이 곧바로 전통적인 성역할분업

의 완화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정보화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역할-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가정 내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관계를 완화시킬 가능성을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로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가족내 성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통적 성역할관계는 지속되리라는 예측도 해 볼 수 있다.

4.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선행연구(Kraut 등, 1998; Norman 등, 2000)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의 영향은 인터넷사용이 많아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a, 2001b)와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의 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이용률은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인터넷이용시간도 20대 이상 성인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용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영향 또한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실제 강수택과 남궁근(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이후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변화 정도는 연령, 학력, 직업,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용이후 가족들과의 대화량 변화가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생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Kraut 등(1998)도 인터넷사용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과 성, 가계소득, 인종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주부인 점을 감안할 때, 주부의 취업여부도 중요한 관련변수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취업여부는 중요한 기준변수로 사용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과 학력수준, 소득수준, 취업여부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2) 인터넷관련 변수

우선 선행연구에서 인터넷관련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인터넷사용시간이다. Norman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Kraut 등(1998)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을수록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가족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고, 우울증이나 고독감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사용시간이 길수록 그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많은 인터넷관련 조사에서 인터넷사용시간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변수가 바로 인터넷사용경력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2001a, 2001b)와 GVU10차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사용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인터넷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즉, 인터넷사용경력이 오래될수록 인터넷사용시간이 길고, 그만큼 인터넷사용의 영향 또한 커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용능력 또한 인터넷사용경력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이다. GVU10차 조사에서는 인터넷사용능력에 따라 초보자수준(novice), 중간수준(intermediate), 노련한 수준(experienced), 전문가수준(expert)으로 나누고, 인터넷사용능력이 전문가수준일수록 인터넷사용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사용경력과 인터넷사용능력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사용경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용능력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사용동기도 인터넷사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Korgaonkar 와 Wolin(1999)는 인터넷사용동기를 7가지(현실도피동기, 거래안전과 사생활문제, 정보적 동기, 상호작용적 통제동기, 사회화 동기, 비거래적 사생활문제, 경제적 동기)로 나누고, 이를 인터넷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사용장애도 본 연구의 관련변수로 포함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와 활동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터넷사용장애가 클수록 인터넷사용수준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의 관계를 분석한 김의숙(1991)의 연구에서도 여가장애가 클수록 여가활동참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겪는 장애가 클수록 인터넷이용수준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원의 인터넷사용여부 또한 중요한 인터넷관련변수라 할 수 있다. 가족원의 인터넷사용여부는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박부진 외(2000)의 연구에서 부모의 인터넷사용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주부의 인터넷사용시간과 인터넷사용경력, 인터넷사용동기, 인터넷사용능력, 인터넷사용장애, 가족원의 인터넷사용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고, 이들을 인터넷관련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 체계내 역동성 변수

Deacon 과 Firebaugh(1988)는 두 하위체계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체계내적 역동성인 응집성, 적응력, 기능성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가족체계내 역동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며, 적응력은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역할규칙을 변화시키는 가족의 능력을 말하며, 기능성은 가족의 요구를 예상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가족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응집성은 통합성을 제공하고, 적응력은 역동적인 반응을 제공하며, 그리고 기능성은 상황에 대해 효율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체계에 기여한다. 가족체계는 이러한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의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가족학분야의 많은 연구들(김수연, 김득성, 1993; 전귀연, 최보가, 1993, 최규련, 1994)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간주되어왔다.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도 이상에서 제시된 체계내 역동성 변수에 따라 가족관계의 변화정도가 달라질 것이라 보고, 이를 관련변수로 선정한 것이다. 박부진 외(2000)의 연구를 통해 가족이 지닌 특성에 따라 인터넷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평소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경우에는 인터넷사용이후에 가족간의 대화가 늘고, 그 내용도 풍

부해지며, 가족간에 유대가 강화된 반면, 평소 가족원간 대화가 별로 없고,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넷사용이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가족체계가 지니고 있는 역동성에 따라 인터넷사용이후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변화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체계내 역동성 변수라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터넷이 생활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부의 인터넷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사회인구학적 변수, 인터넷관련 변수, 체계내 역동성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1)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관계는 가족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간의 심리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심리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다(유영주,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개인적·심리적 관계의 측면과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즉, 가족관계의 변화는 개인적·심리적 관계인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사회적 관계인 가족원간의 역할구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가족원간의 친밀감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친근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으로 구성된다. 한편 가족원간의 역할구조는 부부간의 평등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부부간의 평등성은 부부가 역할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부부간의 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인터넷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Kraut 등, 1998; Th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0; 조정문 외, 1999; 박부진 외, 2000)를 토대로 10문항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5명의 가정학박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원간의 친밀감은 관계를 기준으로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부부관계의 친밀감,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부부간의 평등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척도의 구분은 요인분석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부부관계의 친밀감'은 부부간 대화의 양과 질, 그리고 부부간 친밀감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며,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은 부모자녀간 대화의 양과 질, 그리고 부모자녀간 친밀감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평등성'은 의사결정양식과 성역할구분, 정보격차 등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관계 친밀감, 부모자녀관계 친밀감, 부부간 평등성의 문항간 신뢰도는 각각 .74, .86 .69 이다.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와 부자관계의 친밀감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고, 부부간의 평등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평등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관련변수

인터넷사용시간은 주부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당평균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인터넷 사용경력은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인터넷 사용능력은 인터넷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Novak 등(1997)과 박현주(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 인터넷에서 전자메일을 보내는 것,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것,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인터넷뱅킹이나 주식거래를 하는 것, 인터넷에서 각종 티켓을 예매하는 것, 인

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등 총 8 문항에 대해 '전혀 못한다' 1점에서부터 '아주 잘한다' 5점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사용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동기는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Pradeep 과 Lori(1999)와 전기홍(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총 14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동기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통해서 인터넷사용동기를 4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요인1은 가게관리나 물건구매에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를 유지와 확대를 위한 동기로서 '도구적 동기'로 명명할 수 있고, 요인2는 여가나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동기로서 '여가적 동기'로 명명할 수 있다. 또한 요인3은 새로운 것이나 사회전반적 지식을 얻고,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는 동기로서 '자기발전적 동기'로 칭할 수 있고, 요인4는 각종 생활정보와 자녀교육정보, 직장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동기로서 '정보적 동기'라고 명명하였다. 인터넷 사용장애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를 참고로 하여 6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조작의 어려움, 정보검색방법의 어려움, 정보내용의 부실, 통신비용의 부담, 지나친 사용시간, 속도의 느림 등의 사용장애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시 장애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장애를 묻는 6문항간의 신뢰도는 .55로 나타났다. 가족원의 인터넷사용여부는 남편과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남편의 인터넷사용여부와 자녀의 인터넷사용여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회귀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체계내 역동성 변수

체계내 역동성 변수로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력을 포함하였다. 가족의 응집성은 가족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Olson과 그의 동료들(1982)이 만든 FACEII를 토대로 총 5문항의 가족 응집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는 정서적 유대, 시간, 가족의 경계, 의사결정, 흥미와 오락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간 신뢰도는 .66이다. 가

족의 적응력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역할규칙을 변화시키는 가족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Olson과 그의 동료들(1982)이 만든 FACEII를 토대로 총 5문항의 가족 적응력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는 의견주장, 통제, 역할관계, 관계규칙, 협상방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간 문항간 신뢰도는 .68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주부의 인터넷 사용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이때 인터넷 사용의 기준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이용자기준을 따라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로 하였다.

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on-line)조사와 면접원을 통한 오프라인(off-line)조사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각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에 차이가 있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거주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월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부로 하였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너무 젊은 연령층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부의 연령을 기준으로 미리 할당된 비율을 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주부의 연령에 따라 20대 : 30대 : 40대 이상의 비율이 3 : 4 : 3 이 되도록 의도적인 할당표집을 하였다. 오프라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로 월1회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이때 거주지역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표집하였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비율은 온라인 조사와 동일하게 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00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인터넷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본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on-line)조사와 면접원을 통한 오프라인(off-line)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316명이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전체 61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58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우선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였고,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4%이고, 30대가 40%, 40대 이상이 29.6%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52.1%로 가장 많고, 대졸이상이 32.5%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55%가 2명이고, 1명인 경우가 29.2%, 자녀가 없는 경우도 10.7%정도 된다. 소득수준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이 39.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미만과 300~400만원미만이 각각 26.4%, 24.6%로 많았다.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아파트가 53.6%로 절대적으로 많고, 그 외 단독주택과 연립빌라 등은 각각 24.2%, 22.2%를 차지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비취업주부가 63.9%, 취업주부가 36.1%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교육수준	고졸이하 303(52.1) 전문대졸 89(15.3) 대졸이상 190(32.6) 계 582(100)	
자녀수	없음 62(10.7) 1명 170(29.2) 2명 320(55.0) 3명 이상 30(5.2) 계 582(100) 평균(명) 1.5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54(26.4) 200~300만원미만 231(39.7) 300~400만원미만 143(24.6) 400만원이상 54(9.3) 계 582(100) 평균(만원) 265.8	
주거지	단독주택 141(24.2) 연립빌라 등 129(22.2) 아파트 312(53.6) 계 582(100)	
취업여부	취업 210(36.1) 비취업 372(63.9) 계 582(100)	

2.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부부간의 평등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5>과 같다. 우선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은 평균이 각각

<표5> 가족관계의 변화 (N=582)

항 목	평균 (표준편차)	
	개별 문항별	하위 항목별
부부친밀감	인터넷사용이후 부부간의 대화 증가함	3.31 (.63)
	인터넷사용이후 부부간 대화의 내용이 다양해짐	
	인터넷사용이후 부부간 친밀감이 커짐	
부자친밀감	인터넷사용이후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증가함	3.16 (.85)
	인터넷사용이후 부모자녀간 대화의 내용이 다양해짐	
	인터넷사용이후 부모자녀간 친밀감이 커짐	
부부평등성	인터넷사용이후 의사결정할 때 남편과 평등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짐	2.93 (.60)
	인터넷사용이후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짐	
	인터넷사용이후 부부간의 엄격한 역할구분이 많이 약화됨	
	인터넷사용이후 남편과의 정보격차가 줄어듬	

3.31점과 3.16점으로 나타나 인터넷사용이후 가족관계의 친밀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부간의 평등성은 평균이 2.93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문항별로 살펴볼 때,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 중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이 다양해졌다'의 평균이 3.52로 가장 높았다.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에서도 '부모자녀간 대화의 내용이 다양해졌다'의 평균이 3.25로 높게 나타나, 인터넷사용으로 가족원간 대화의 내용이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간 평등성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정보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문항만이 평균 3.27로 높을 뿐 다른 문항에서는 평균이 3점 이하로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인터넷사용이후 부부간의 정보격차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의사결정이나 역할구분 면에서는 부부간 평등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취업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인터넷사용시

간, 사용경력, 사용능력, 사용동기, 사용장애, 가족원사용여부⁴⁾ 등의 인터넷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등의 체계내 역동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부부간의 평등성 차원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우선 부부관계의 친밀감 차원에서는 도구적 동기, 자기발전적 동기,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남편사용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5.0% 정도이다. 체계내 역동성변수가 모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제시되었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큰 편이다. 즉, 평소 가족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고,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이후 부부의 친밀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상반된 경향을 통합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박부진 외(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국, 인터넷이 부부관계의 친밀감 향상에 기여하는데 수단으로서 활용되는가는 평소 가족이 지닌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내 역동성 이외에도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부부친밀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도구적인 동기는 가계관리나 구매의 수단, 또는 관계유지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들의 의

<표6>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중회귀분석

		부부친밀감		부자친밀감		부부평등성	
		B	Beta	B	Beta	B	Beta
인구 통계적 변수	연령	-2.89E-03	-.034	3.25E-02	.265***	3.76E-03	.045
	월평균소득	-3.73E-04	-.066	-4.12E-04	-.052	-2.89E-04	-.052
	학력년수	-1.81E-02	-.061	-4.85E-02	-.116**	1.24E-02	.043
	취업여부	3.17E-02	.025	1.62E-02	.009	-2.79E-02	-.023
인터넷 관련 변수	사용시간	-5.69E-03	-.095	7.24E-03	.086	1.81E-03	.031
	사용경력	8.26E-04	.018	3.46E-03	.053	-2.44E-03	-.055
	사용능력	5.45E-03	.008	-6.53E-03	-.007	.111	.164**
	도구적 동기	8.50E-02	.142***	3.33E-02	.040	6.99E-02	.118**
	여가적 동기	3.72E-02	.061	-2.83E-02	-.033	-3.61E-03	-.006
	발전적 동기	6.61E-02	.109**	2.07E-02	.024	6.08E-02	.102*
	정보적 동기	-2.03E-02	-.034	8.15E-02	.098*	1.37E-02	.023
	사용장애	-1.62E-03	-.001	6.90E-02	.044	4.71E-02	.043
	남편사용여부	.328	.160***	-	-	.107	.053
	자녀사용여부	-	-	.604	.338***	-	-
체계내 역동성변수	응집성	.187	.164***	.216	.134**	2.53E-02	.023
	적응력	.138	.112**	.111	.065	9.72E-03	.008
(Constant)		2.291***		.831		2.073***	
R ²		.150		.342		.078	
수정된 R ²		.127		.322		.053	
F값		6.60***		17.42***		3.16***	

* p<.05 ** p<.01 *** p<.001

4) 가족원사용여부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만 독립변수로 포함된다.

미하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가계를 관리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부부간에 친밀감이 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는 직접적으로 부부가 서로 인터넷을 통해 메일을 주고받는 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인터넷이 기여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발전적 동기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사회전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사용동기이다. 즉, 주부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사회전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남편들과 대화의 양과 질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부부간의 친밀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학력, 정보적 동기, 가족응집성, 자녀사용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2% 정도이다. 즉,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보적 동기가 강할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의 사용여부와 주부의 연령이 부모자녀간 친밀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향상된다. 자녀의 사용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을 사용할 때, 부모자녀간에 대화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은 자녀의 연령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⁵⁾ 즉, 주부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부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자녀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대화의 내용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동기요인 중에는 특이하게 정보적 동기만이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정보적 동기 내에 인터넷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어 사용한다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경우에, 인터넷은 부모자녀간의 친밀감 향상의 수

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평등성 차원에서는 사용능력, 도구적 동기, 자기발전적 동기만이 의미있는 변수로 제시되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도 7.8%로 낮은 수준이었다. 즉,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인터넷 사용이후 부부간의 평등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다.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에서 제시한 정보불평등지수는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인터넷 사용능력은 역량지수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부부평등성 차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성평등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역량차원에서의 평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터넷사용동기 중에서는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부부친밀감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즉, 주부가 인터넷을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로 사용하는 경우일수록, 인터넷사용이후 부부간의 평등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부들이 인터넷을 가계관리나 구매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또는 관계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의사결정시 남편과 보다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간 평등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부들이 인터넷사용을 자기발전적인 동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사회전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로써 남편과의 정보격차나 부부간 역할구분이 줄어들게 되어 부부간 평등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부부간 평등성의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족관계의 친밀감 차원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과 같은 체계내 역동성변수와 가족원의 사용변수의 영향력이 사용능력이나 사용동기에 비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부관계와 부부관계의 친밀감은 남편이나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상반된 경향-한편에서는 인터넷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고립감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성원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가족간

5) 주부연령과 막내자녀연령간의 상관계수가 .89로 둘 간에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친밀감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즉, 인터넷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가족원사용여부와 같은 가족집단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사용시간이나 사용경력, 사용능력이 가족관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지 않는 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사용시간이나 사용경력, 사용능력은 단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가족관계의 친밀감이 좌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변수보다는 가족의 체계내적 변수인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가족원의 사용여부와 같은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 변수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족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는 매개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그 매개수단을 활용하는 주체인 가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가족원 개개인이 인터넷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사용한지 얼마나 되었으며,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개인적 배경보다는, 가족원간 응집력과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가족적 배경이 정보화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부부관계의 평등성은 가족관계의 친밀감 차원과 달리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관계의 평등성은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력과 같은 가족내 체계내적 역동성변수보다는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이나 사용동기 등과 같은 인터넷관련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평등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뿐만아니라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인터넷사용이후 부부간의 평등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거나 자기발전적 용도로 활용할 때, 부부간 정보격차가 줄고, 의사결정도 보다 평등하게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부부간의 평등성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인터넷사용이후 가족관계의 친밀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족원간 대화내용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졌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긍정적 기여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주부의 인터넷사용 이후, 부부간의 평등성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부부간의 정보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부부간의 정보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터넷사용이후 가족원간 친밀성의 변화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과 같은 체계내 역동성변수와 가족원의 사용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나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용이후 가족관계의 친밀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상반된 경향-한편에서는 인터넷이 가족원의 고립감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원간 친밀감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평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으면서 가족원이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족은 인터넷을 가족원간의 친밀감을 보다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반대로 평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떨어지는 가족에게 인터넷은 가족원간 소외감과 고립감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을 활용하는 주체인 가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주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부부관계의 평등성은 가족관계의 친밀성 차원과 달리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사회에서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부부관계의 평등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주부들의 적극적인 인터넷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부인터넷교육의 프로그램은 주부들이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를 개발하고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사용능력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능력으로 간주되므로, 주부들도 정보화사회를 살아나가는 생활인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은 가정내 가족원들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부부간의 성평등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이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써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원이 기본적인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함양하고, 또 인터넷사용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은 가족원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를 나누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원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인터넷이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써 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려면, 가족원들이 기본적인 정보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동시에 인터넷사용에 대한 주체성도 함께 함양해야 한다. 인터넷사용에 대한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때, 그 부작용으로써 가족원간 소외와 고립, 인터넷중독, 세대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인터넷교육에서도 단순히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능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은 생활의 도구이자,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 주부, 인터넷 사용,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원간 친밀감, 부부간 평등성

참 고 문 헌

- 강수택·남궁근(1998) "인터넷이용현황과 이용자특성", 사회과학연구, 16(2), 213-263
- 고선주(2000) "정보화사회에서의 가족-네티즌의 가족, 친족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42.
-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 순환 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김은미(1999) "가정정보화와 사이버가족", LG 커뮤니카토 피아연구소 편, 정보혁명, 생활혁명, 의식혁명, 41-78, 백산서당.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부진(1998) "정보화사회의 가족관계 -위계구조의 변화와 적용", 서울대인류학연구회,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105-129, 집문당.
- 박부진·이해영(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34.
- 박현주(1999)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유용성평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선화(1980)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1",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11집, 77-91.
- 유영주(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정로(1998) "정보화와 여성", 한국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297-321, 나남.
- 이수진(2000)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정 및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조 은(1998)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정보화로 가는 길, 98.5, 14-17.
- 조정문·임정덕·김성국·이대식·김영삼·조영복·신종국(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집 여름호, 389-415.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가족학, 하우.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a)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00년 12월조사결과).
- _____ (2001b)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01년 3월조사결과).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0년 10월 25일자,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1년 1월 11일자, 초고속인터넷가입자 400만 돌파.
- 한국경제신문, 2001년 4월 5일자, 한국 초고속통신망 가정 보급률 1위.
- _____ , 2001년 4월 25일자, 한국 인터넷보급률 세계1위. inews24.com, 2001년 6월 12일자, 초고속인터넷.
- KNP(2000) 2000 Fall KNP보고서(<http://knp.adic.co.kr/>).
- Adams, B. N.(1986)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 Chicago: R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Bird, G. A. and Goss, R. C.(1990) "Effects of Home Computer Use on Father's Lives", *Family Relations*, 39(4), 438-443.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th ed, Allyn & Bacon Inc., Boston.
- Fothergill, Anne(1994) "Telework: Women's experiences and utilization of technology on the home", in Alison Adam et al.(eds.), *Women, Work and Computerization : Breaking Old Boundaries, Building New Forms*, Amsterdam ; New York : Elsevier.
- Fox, Susannah & Lee Rainie(2001) "Time Online : Why some people use the Internet more than before and why some use it less", *Pew Internet & America Life Project*, (http://www.pewinternet.org/reports/pdfs/PIP_Time_spent_online.pdf).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2nd ed., IL : Scott, Foresman and Company, 노영주 외 역 (1988)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까치.
- Haddon, L. & Silverstone, S. (1995) "Telework and the changing relation of home and work", in Nick Heap et al(e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ety : a reader*, London ;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 Hughes, C.(1999) "The relationship of use of the Internet and loneliness among college student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60, 579.
- Kraut, R.,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7), "Why People Use Internet", (<http://homenet.hcii.cs.cmu.edu/progress/purpose.html>).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W.(1998) "Internet Paradox :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http://www.apa.org/journals/amp/amp5391017.html>).
- Novak, T. P., & D. L. Hoffman(1997) "Measuring the Flow Experience Among Web Users", Paper Presented at Interval Research Corporation, Project 2000, Vanderbilt University, (<http://www2000.ogsm.vanderbilt.edu/novak/flow.july.1997/flow.htm>).
- Olson, D. H, Bell, R, & Portner, J.(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II*.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 Pew Internet & America Life Project(2000) "Tracking online Life: How Wome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http://www.pewinternet.org/reports/pdfs/Report1.pdf>).
- Pradeep, K. Korgaonkar & Lori, D. Wolin(1999) "A Multivariate Analysis of Web Usag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9(2), p53.
- SIQSS(2000), Norman, H. Nie & Lutz Erbring, "Study offers Early Look at How Internet is Changing Daily Life",(http://www.stanford.edu/group/siqss/press_release/press_release.html).
-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이규행 감역(1989) 제 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
- GVU(1998), *GVU's 10th WWW User Survey*,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8-10/#top).
- Nielsen/Netratings(2001) *Global Internet Index* (<http://www.nielsen-netratings.com>).
- Nua Internet Survey, (<http://www.nua.ie/surveys/index.cgi>).

(2003. 03. 05 접수; 2004. 05. 31 채택)